

原子力創業의 證人들

對話로 엮는 우리 原子力史

朴 益 洙
(本 協 會 會 長)

尹世元 編(3)

朴 : 研究用原子爐를 建立하고 그 原子爐를 購買한 문제에 대해 좀 물어 보겠습니다.

研究所敷地를 選定하고 여기에 최초로 건립한 건물이 同位元素研究棟이었던군요. 이것은 原子爐가 아직 導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研究棟을 먼저 지은 것입니까.

尹 : 이 研究棟은 1958년도 예산으로 지은 것인데 이 때 확보한 3억원되는 예산을 敷地선정이 늦어져서 다 쓰지 못하고 1959년도로 移越시켰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선 그 研究棟을 지은거죠.

그리고 原子爐建物은 原子爐機資材들의 우리나라 도착이 예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예산은 59년도 예산에 따로 확보돼 있었읍니다.

朴 : 研究所敷地를 확정한 것이 언제입니까. 이것에 대한 확실한 기록이 없어요.

尹 : 내가 오늘 그 기록을 가지고 왔읍니다. 대통령에게 결재를 상신한 것이 59년 2월 9일이니까 2월 말쯤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1안과 제 2안으로 구분하여 상실했는데 물론 이 내용은 5部長官會議의 합의를 거쳐 낸 것입니다.

朴 : 그러니까 原子力院이 發足되고 김법린 院長도 취임한 후군요.

尹 : 그렇읍니다. (이하는 대통령에게 상신한 公文原文임)

대통령 각하

단기4292년 2월 9일

원자력원장

원자력연구소 설치장소 선정에 대한 일

본원에서는 원자력연구소 설치장소를 물색하고져 서울근교를 답사하였는바 좌기 2개처의 후보지 중에서 제 1후보지를 원자력연구소 설치장소로 결정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제 1후보지 :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하계리 문교부관리중의 국유지 일부와 사유 만유림을 합한 약 25만평

제 2후보지 :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학암리를 중심으로 중부면 중대면 일부에 걸친 약 150만평의 국방부 관리중의 국유지

제 1후보지 내역

(1) 위치(생략)

(2) 면적

동후보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지 27만 9,828평 중에서 현재 교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약 13만평과 인접한 사유임야 약 12만평을 합한 약 25만평을 연구소 설치장소부지로 한다.

(3) 현황

동 후보지의 일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숙사에 정지로 정지하였던바 기숙사 예정지를 서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육군공병대가 주둔하였을 때 일부 정지하여 놓았기 때문에 연구소 건축공사에 지대한 도움을 받게되어 있다.

(4) 지질(생략)

(5) 지하수(생략)

(6) 지형과 기상 상태(생략)

(7) 주위환경

(8) 교통(생략)

제 2 후보지내역

(1) 위치

(2) 면적

국방부관리하에 있는 150만 4,533 평으로서 임야 57%, 전답 43%로 되어있다.

(3) 동 후보지는 현재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 육군중앙목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5만평에 불과하고 나머지 전부는 국방부가 동지방 농민에게 사용임대계약을 하고 사용허가를 하고 있다. 동지역농지를 경작하는 농가호수는 현재 약 300호나 된다.

以下同(생략)

제 1 후보지를 원자력연구소 설치장소로 결정한 이유

(1) 정책적 고려에서의 원칙

원자력사업 전부를 원자력 연구소 설치장소에 집중시켜 이 곳에다 원자력연구소와 원자력 발전소, 원자연료처리공장, 원자연료재생공장 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는 일부견해는 불가하다

원자력연구소는 어디까지나 학술기관과 인접하여 있어서 밀접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원자력발전소나 연료처리공장 등의 생산공장은 지역적 경제환경과 입지조건에 따라서 분산 설치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자력사업의 정책적 견지에서 볼 때 원자력연구소는 학술기관에 인접한 곳 중에서 적당한 장소로 선정하여야 하고 원자력발전소와 원자연료공장 등의 생산공장은 대전 이남으로 분산시켜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2) 실적 고려에 의한 결정

원자력연구소의 설치장소 선정에 있어서 고

려할 점은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원자력연구소가 학술기관과 인접하여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한다는 이나라 과학자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원자력연구소를 국방상 안전지대에 설치하는 문제이다.

위에서 말한 두 후보지 중 그 어느 곳에 있어서나 이 두 기본원칙은 서로 상반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여기서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하여야 할 점은 우리나라 원자력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고려하여야 할 점은 원자력연구소를 국방상 안전지대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만을 생각하여 연구소를 기존학술기관과 멀리 떨어져 있게 한다면 이는 이 나라 과학자가 원자력사업에 협력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이 나라 원자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방상 안전지대를 물색하려고 이 나라 과학자들의 희망하는 것과는 달리 기존학술기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면 이는 원자력사업의 실패를 초래할 우려성이 농후할 것이다.

여기서 국방상 안전지대라는 용어는 전략상의 용어가 아니고 전술상 용어에 불과하다. 전략상으로 볼 때 제 1 후보지나 제 2 후보지는 전혀 동일하며 전술상으로는 제 2 후보지가 제 1 후보지에 비하여 후퇴작전에 있어서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을 뿐이다.

(3) 제 2 후보지의 불리한 점(생략)

(4) 제 1 후보지의 유리한 점

공과대학 인접지 25만평을 연구소 설치장소로 결정한다면 제 2 후보지에서 고찰한 모든 불리한 점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들이 대부분 유리한 점으로 바뀌어 진다. 그러므로 제 1 후보지를 연구소 기지로 결정한다면 학계의 의견과 합치되며 또한 연구소설치공사비도 적게 들 것이다.

(5) 선진국의 예

원자력연구소 설치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실례를 크게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연구소자체를 한군데 모으지 않고 분산시켰으며 각 연구소마다 기존 대학교

및 학술기관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리노이주에 있는 「알콘」국립원자력연구소는 중서부에 있는 여러 대학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도록 되어 있고, 뉴욕주에 있는 「부르그헤븐」국립원자력연구소는 동부지방 9개 대학에 의하여 운영관리하게 되어 있으며 「오크릿지」국립원자력연구소는 남부지방의 여러 대학 「로스 아라모스」국립원자력연구소는 서부지방의 대학들에 의하여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예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불란서, 이태리같은 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

결론

우리나라의 원자력연구소도 선진국에서와 같이 한 곳에다 건설할 것이 아니고 장차 가능한 한도내에서 서울과 대전 이남 적당한 장소에 다 연구소를 설치하여 전체적으로 원자력의 모든 분야에 걸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서울근교에 있고 또 학술기관에 인접한 제 1 후보지가 원자력연구소 설치장소로서 최적당하다고 보고 이 곳을 선정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朴: 原子力院이 발족되면서 初代院長 金法麟이 任命된 것이 1959년 1월 9일이고 그리고 2월 3일 朴局長이 所長으로 任命되면서 서울大學校 工科大學 4號館에 原子力研究所看板을 건 것이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研究所의 本部는 工科大學 4號館으로 사용하면서 우선 同位元素研究棟을 건립한 거군요.

尹: 그렇습니다만 여기에는 또 그 이전의 歷史가 있습니다

58년도 原子力 豫算이 3억원이었는데 그 主務課長이 이것을 다 쓰지 못하고 다시 國庫로 돌려 보냈다하면 모두들 나를 바보課長이라 할거 아녓니까(웃음). 어쨌든 이 예산은 58년도에 다 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중 1억원은 研究補助費로 당시에 학술연구와 정책연구에 지급되었는데 서울大學校 李東寧의 加速裝置製作費도 여기에서 나왔고 각 대학에 件當 몇백만원에서 천만원 단위로 1억의 연구보조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研究棟은 우선 서울大學校 文理科 大

學校 理科校舎로 사용했던 清凉里校舎의 (荷 京城帝大豫科)敷地안에 지을려고 했었습니다.

朴: 왜 그 곳에다가 지을려고 했습니까. 지어놓으면 결국 서울大學校所有가 되어버릴 텐데.

尹: 그 곳에 지으면 결국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나 研究所敷地는 確定되지 않았고 남은 예산은 國庫로 返還시키지 않았고 그래서 우선 그 곳에 研究棟을 지어 사용하다가 서울大學校에 주게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大學에서 有效하게 사용만 하면 국가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은 아니더라고 생각했던 거죠.

朴: 그런데 왜 그렇게 실천되지 않았습니까.

尹: 건물을 지으려고 협의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原子力法과 1959년도 原子力豫算이 國會에서 통과되고 翌年初에 곧 原子力院과 原子力研究所가 發足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들이 保留되고 翌年으로 넘어 가게된 거죠.

朴: 同位元素研究棟의 起工式이 1959년 4월이었는데 그러면 原子爐建立의 起工式은 언제였습니까.

尹: 그것은 7월 14일입니다. 그 때 李承晚 大統領도 나오셔서 起工式삼도 했는데 그 記念寫眞이 「原子力20年史」에 나왔더군요.

朴: 起工式을 7월 14일로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尹: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다만 7월초에 原子爐機資의 일부가 仁川港에 도착했던 것이 그렇게 서두르게된 동기였다고 생각합니다.

朴: 그러면 그 때에 이미 原子爐建物を 위시한 原子力研究所의 「조감도」라든지 각 건물에 대한 설계같은 것은 모두 완료되어 있었습니까.

尹: 그 때까지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미국이나 유럽에 회의참석한 후, 항상 연구소건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20여 곳을 시찰한바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든 것이 西獨문헌 原子力研究所에 있는 Swimming Pool型 研究用原子爐建물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런 형태 저런 형태 등의 건물형식을 노트에 스킷치해 둔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나 혼자의 생각으로 결정할 수 없어서 우선 建築專問家를 속히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것이 建築家인 金重業입니다.

朴: 그러니까 그 건물이 金重業의 설계군요.

尹: 네, Outline은 내 의견을 참작했습니다만, 설

계는 그 분이 했습니다.

당시 金重業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건축가로 알려졌고 또 나하고는 옛날부터 친분이 있어서 무슨 이야기도 거리낌없이 말할 수 있어서 그 분을 택했습니다. 처음 지은 同位元素研究棟도 그분의 設計입니다.

朴: 그 분이 당시에 유명한 建築設計者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原子爐建物에 대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까.

尹: 그래서 이 분을 설계하게 하기 전에 정부의 예산으로 약 2개월동안 美國視察를 시킨바 있습니다. 原子爐建物은 여러가지 특수한 설계를 요구하는 문제도 있고 특히 遮蔽 및 汚染除去 등 부분에 대한 설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여러 原子力施設을 실제 보고 오도록 했지요. 그 金重業의 視察報告書가 노트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어딘가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1959년 4월경에 출발해서 6월경에 돌아 왔습니다.

朴: 그러면 그 설계에 대한 시공은 누가 했습니까.

尹: 원래 이것은 G. A社의 턴키베이스로 하려던 것인데 계약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합의해서 基礎工事라든지 콘크리트工事 및 建物은 우리나라 業체에게 맡기도록 했지요. 그리고 G. A社는 Engineering부분을 HOLMES AND NARVER社에 下請을 주었어요. 그리고 G. A社는 총체적인 監督만 했지요.

朴: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는 어떤 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尹: 당시 金院長님은 業體選定을 매우 중요시하고 院內에 施工業者選定委員會를 만들었습니다. 그 때 위원으로는 朴哲在 외에 金允基, 이천석 두 건축전문가를 委嘱하고 院長이 위원장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가 바로 中央産業(사장 조성철)이었습니다.

朴: 그런데 그 때의 中央産業은 가장 큰 업체중의 하나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尹: 물론 있었지요. 당시 중앙산업은 5대 기업중의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기술에 있어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일 즉, 콘크리트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서독에서 專問技術者를 모셔다가 기술지도를 받고 있어서 콘크리트기술에 있어서

는 다른 회사의 추종을 불허했었습니다.

朴: 그러니까 原子爐建造에 있어서는 콘크리트 遮蔽施工이 중요하니까 그 기술이 業體選定에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군요.

尹: 그렇습니다. 당시 鐵路의 枕木이라든지 電柱의 재제는 보통 목재였는데 이것을 제일 처음 콘크리트로 대체한 것이 中央産業이었으며 또 시멘트벽돌도 개발했지요. 그래서 6.25전쟁 후의 복구작업에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朴: 그래서 中央産業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책임을 수행했습니까.

尹: 네, 잘 했다고 볼 수 있지요. 가령 겨울에도 시멘트공사를 계속해야 했는데 徹夜工事시설도 하고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暖房시설도 하면서 일했으니까 공사는 아주 열심히 그리고 성의있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朴: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61년 1월에 공사가 중단됐는데 이때에 그렇게 된 이유가 탱크의 용접부분에 결함이 생겨서 工事が 지연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었습니까.

尹: 기술적인 책임은 일차적으로 G. A社에 있고 G. A社가 HOLMES AND NARVER社에 모든 Engineering에 대한 下請을 주었으니까 직접적으로는 이 회사에 책임이 있었던 거죠. 이 회사의 技術責任者가 Mr. ALVY였는데 이 때 G. A社의 Mr. GRAFF도 와서 결국 잘 해결하고 갔지요.

朴: 용접부위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알미늄라이너를 더 붙였는데 그 알미늄라이너를 새로 만들어 오느라고 工期가 늦어졌다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된게 아닙니까.

尹: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때 그 분들이 잘 해놓고 간것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朴: 원래 竣工期間은 어느정도 예정한 겁니까.

尹: 약 1년간을 잡았지요. 따라서 60년 여름까지는 완성해야 했는데 하다보니 設計變更이 자주 있게 됐습니다.

가령 原子爐室안에 회의실을 좀 더 크게 늘려야 하겠다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 경우만해도 원자료를 가동만 한다면 그대로 해도 무방하지만 이것이 研究用인 동시에 教育用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教育도 할 수 있게 돼야 했거든요. 물론 처음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건설하는 과정에 자주 본래의 설계

를 변경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竣工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0년도에는 4.19혁명도 나고 또 內紛도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복합요인이 돼서 예정대로 완성못한 겁니다.

朴: 네 잘 알겠습니다. 內紛에 관한 문제는 다시 따로 이야기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서는 원자로에 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데 그 工事進行과정에 있었던 일로써 더 말씀해 주실것은 없습니까.

尹: 네 한가지 기억납니다. 전에 탱크용접결함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이 보다는 특히 기억나는 것은 쿨링시스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때에 쿨링시스템이 원래 설계에는 내부에만 설계되어 있었는데 관계되는 연구관들이 모여서 토의한 결과 외부에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돼서 당시 기계전문이고 爐工學研究室長이었던 李寬을 責任者로해서 외부의 쿨링타워를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自作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朴: 듣고보니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불안했던 시기에 原子力研究所의 研究官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일했다는 어떤 단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尹: 네, 그 때에는 모두 연령도 젊고 원자력을 연구한다는 자부심도 있어서 무척 열심히 일하려고 했습니다.

朴: 저는 原子力研究所의 内部事情에 대해서 직접 보고 듣게된 것은 61년도의 5·16혁명 후부터였습니다.

혁명 후 原子力院長으로 吳元喜가 임명됐는데 이 분이 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누구의 소개를 받고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해요. 당시 해군대령의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나중에 준장으로 昇級하면서 預編) 말하자면 자문역할을 청해서 자주 原子力院에 나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때 이분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조속히 원자로를 가동시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爐工學研究室長인 李寬을 불러서 연말까지 원자로를 가동하게 하면 우선적으로 원하는대로 해외유학을 보내 준다는 약속을 하는 것을 앞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그 원자로가 그 때까지 지연된 큰 이유가 民主黨

時代에 院과 所사이에 더욱 激化됐던 內紛때문에 지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만.....

尹: 그런 문제가 큰 이유였다고 볼 수도 있지요.

朴: 어쨌든 그 문제는 다시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尹박사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할 것이 없는지요.

尹: 그래서 吳院長時代에 원자로가동은 약속한 기일대로 했습니까.

朴: 原子爐試動의 臨界도달이 62년 3월 19일이고 완전한 試驗成功이 3월 29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61년도의 연말까지는 완성하지 못했지만 대체로 약속대로 수행한거죠.

尹: 그래서 李寬이가 유학가게 됐군요.

朴: 네. 그때 李寬외에 몇 사람이 더 간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原子爐購買에 관한 문제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尹: 韓美原子力雙務協定이 正式締結된 것이 1958년 2월인데 이것은 韓國에 있어서의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이용에 대하여 미국이 어떻게 도와주고 또 이에 대해 한국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이 주요내용이고 이러한 협정체결에 따라 한국이 研究用原子爐를 購買하고자 할 때에 美國이 35만弗을 補助하겠다고 제시된거죠. 물론 이 때에는 한국정부도 동일 額數인 35만弗을 같이 내는 조건이었습니다.

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정부로부터 35만弗을 받을 때에는 우리 정부에서도 35만弗을 내야 하니까 결국 原子爐건설사업을 위해 70만弗이 확보된 셈이군요.

朴: 그렇습니다. 그래서 57년도 미국의 그러한 정책을 알고 58년도 원자력에예산으로 3억원을 얻어 놓았지요.

朴: 당시 換率이 500원/\$이었으니까 35만弗이면 1억 7,500만원인데 이것을 제외한 1억 2,500원은 다른 研究棟 건설비였습니다.

尹: 다른 연구동건설비는 59년도예산 14억속에 따로 있었습니다.

朴: 그러면 이제부터 원자로의 爐型을 결정하고 이것을 계약하기까지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尹: 研究用原子爐를 도입한다는 정책은 결정되었는데 도대체 미국에 어떤 원자로가 있는지 아는 것이 첫째 과제였습니다.

朴 : 당시에 研究用 原子爐는 미국밖에 없었습니까.

尹 : 당시에는 미국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西獨 문헌 原子力研究所의 研究用 原子爐도 미국 G.E. 社의 SWIMMING POOL型을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더욱 우리의 原子爐購買資金은 미국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미국제를 사야했습니다.

朴 : 그래서 爐型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尹 : 알아보니깐 그 때만 해도 미국에는 몇가지 研究用 原子爐가 팔리고 있었습니다. 전에 이야기한 G.E. 社製와 G.A. 社의 TRIGA-MARK-II 型, A.I. 社(ATOMIC INTERNATIONAL)의 OMRE型(ORGANIC MODERATED REACTOR EXPERIMENT), 그리고 AMF 社製의 SWIMMING POOL型(G.E. 社同一)이 있었는데 누구나 이것을 본 일도 없고, 또 그 특성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우선 우리의 STUDY GROUP에서 조사하고 토론하면서 많은 論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A.I. 社製와 G.E. 社製의 爐型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다음에 購買團을 조성해서 미국에 갔지요.

朴 : 그게 언제쯤 됩니까.

尹 : 58년 8월 16일입니다.

朴 : 그 때 TEAM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尹 : 朴國璋, 金熙圭, 李鎮鐸, 나였고 그외에 正式의 購買團員은 아니었지만 미국유학을 온 전완용이가 같이 隨行도 하고 협의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 朴國璋은 9월 22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第2次 原子力平和利用會議에 참석하고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우리와 합류하기로 하고 金熙圭, 李鎮鐸 그리고 나하고 먼저 갔지요.

朴 : 그러면 어떤 原子爐부터 먼저 가 보았습니까.

尹 : 처음에 G.E. 社의 SWIMMING POOL型부터 보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처음 原子力研究訓練生으로 미국에 갔을 때 이러한 爐型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제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예산보다 훨씬 비쌌어요. 우리는 35만弗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약 50만弗에서 70만弗 정도 였다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OMRE 型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지만 外觀上 좀 보잘것 없고 작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으니깐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35만弗에 적당한 爐型은 G.A. 社의 TRIGA-MARK-II 型이

였습니다.

이것은 금액도 우리 예산에 적정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보다 비교적 심플하고 안정성이 있었고 또 여러가지 基礎研究할 수 있는 특성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매단 그룹이 이모 저모 토의하고 협의한 끝에 이것으로 결정했지요.

그 다음에 朴國璋이 제너바회의를 마치고 미국에 와서 우리의 설명을 듣고 G.A. 社 HOFFMANN 社長의 案内로 G.A. 社가 있는 샌디아고(캘리포니아州) 근처의 La Jolla로 직접 가셨습니다.

朴 : 그 때는 尹博士님도 동행했습니까.

尹 : 아닙니다. 혼자 가셨지요. 그렇게 보고 오셔서 좋다고 해서 최종결정을 보게 됩니다.

朴 : 그 때에 돈은 미국정부로부터 이미 받아 놓았습니까.

尹 : 아닙니다. 爐型을 정했으니깐 이제부터 G.A. 社의 PROPOSAL을 가지고 돈을 청구해야죠.

朴 : 대금은 얼마였습니까.

尹 : 33만 1,000弗이라 기억합니다.

朴 : 우리의 原子力 20年史를 보니까 미국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이 35만弗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돈도 다 받았습니까.

尹 : 물론 다 받았지요.

33만 1,000弗이라는 것은 核燃料代金を 뺀 것이었습니다.

당시 核燃料에 관해서는 미국 原子力法上 국가에서 統制管理하는 물질로 되어 있어서 판매할 수 없는 물질로 제약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核燃料은 따로 美國政府와 리스협정을 맺고 임차하는 형식으로 받았으나 이것은 그 후에 미국 原子力法이 정식으로 買賣할 수 있게 개정되면서 賃借가 買入으로 바뀌어졌지요.

朴 : 나머지 돈은 어떻게 썼습니까.

尹 : 그러니까 미국정부에서 받은 돈 중에서 약 2만弗이 남았고, 또 原子爐建設費 33만 1,000弗중에 中央産業이 하청받은 공사비 약 3만弗을 韓貨로 지불해서 이것도 外貨(弗)로 남겼으니깐 이것에 우리정부에서 내 놓은 35만弗을 합치면 약 40만弗의 외화자금을 갖게된 건데 이것은 모두 研究機器사는데 사용했지요.

그 때에는 우리나라가 外貨事情이 아주 나빠서 다른 부처 사람들이 정부보다 原子力院이 외화를 더 많이 가졌다고 비꼬아 말한 일도 있었지요.

어쨌든 그 미화는 미국의 우리 大使 名義로 예금 해 놓고 몇년동안 분할해서 사용했지만 연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朴: 어떤 기기들을 샀는지 대체로 주요한 기기에 대해 기억하고 계시는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尹: 지금 잘 기억 나지 않습니다만 化學研究에 사용된 MULTIPLECHANNEL ANALYZER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 외에 주로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에 관한 기초연구용 기기들이었습니다.

朴: 爐工學研究部長을 맡고 계신 尹박사님 연구기기는 사지 않았습니까.

尹: 그 돈으로 제 연구기기는 거의 산 것이 없습니다(손을 내 저으며). 정말입니다(웃음).

朴: 알겠습니다. 처음 연구기기를 사는 것이니까 각 연구실 요구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느라고 그것도 고심이 많았겠습니다.

그러면 G.A.社와의 구매계약은 언제했습니까.

尹: 그것이 58년 12월초라 기억합니다.

朴: 그 때 계약하고 돈을 신청하고 하는 우리 정부에서의 결제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尹: 네, 그것은 그 이전에 이미 다 결제를 받았지요. 原子爐구매에 관한 大統領決裁는 58년 11월 초에 받았고 미국정부에 보조금신청을 내고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은 워싱턴에 있는 우리 大使에게 모두 일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편리하게 조치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梁大使의 결제만 받으면 언제든지 그 돈을 쓸 수 있었든거죠.

朴: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35만弗을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尹: 59년 1월쯤됩니다.

朴: 그러니까 아주 쉽게 빨리 받았군요. 이러한 사무적인 교섭은 우리 大使館에서 다 해 주었습니까. 尹박사님이 직접하셨습니까.

尹: 계약을 하고 돈을 청구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大使館의 도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G.A.社와 구매계약을 할 때에 우리側 代表로; 梁裕燦大使가 했을 뿐이죠.

朴: 왜 朴국장이 대표로 하지 않았습니까.

尹: 그 때만해도 G.A.社長과 계약하는데 좀 “웨이트”가 낮았지요. 그리고 原子爐購買에 대한 모든 책임을 梁大使에게 일임했으니까 梁大使가 우리의 정식대표가 되고 朴국장은 副署 정도는 했

을 겁니다.

朴: 그 때 尹박사님은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尹: 네, 朴국장이 참석했으니까 나까지 참석할 필요는 없었지요. 金熙圭, 이진택 나는 미국정부의 보조금을 타고 원자로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실무적인 일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계약하는 자리에 日本駐在 原子力極東擔當官인 PZNN-INGTON도 같이 合席했었습니다.

朴: 미국정부의 보조금신청과정에 어려웠던 일은 없었습니까.

尹: 그런것도 처음하는 일이어서 어떻게 하는건지 알아야죠. 그래서 原子力極東擔當官인 PZNN-INGTON도 이때 미국에 와서 아주 친절하게 협조해 주었고 PROPOSAL은 G.A.社에서 다 만들어서 자기들이 다 해 줍니다. 계약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지 계약이 끝나니까 돈 타는 것은 자기들이 다 해 주더군요.

朴: 그렇지요. 누구보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잘 알고 또 요령도 잘 알테니까. 그것은 잘 했을 겁니다.

尹: 우리를 믿고 언제 그 돈을 받으니까. 자기들이 받을 돈이니까 빨리 한거요.

朴: 다른 또 기억나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尹: 거의 다 한것 같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 35만弗 탄 이야기를 좀 하지요.

우리 원자로구매단이 미국으로 갈때에 35만弗을 가지고 가야하는데 당시 財務部長官인 김현철의 결재를 맡고 미국 우리 大使앞 送金手票로 해서 가지고 갔는데 부흥부장관인 송인상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서 자기가 없는데 결재했다고 큰 불평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원래 5部長官會議을 할 때면 다른 장관은 내가 설명하면 별 의견이 없어요. 그런데 송인상長官은 하나 하나 따지고 아주 세밀해서 항상 말이 많았는데 제일 중요한 35만弗결재에 그렇게 신경을 썼더군요.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70만弗 모두 미국의 우리 大使館에 예치해 놓고 사용하게 한 것은 그 때의 우리 정부로서는 아주 예외의 특별한 조치였다고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朴: 우리로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최초로 이런 일을 맡아하신 尹博士님으로서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충도 많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에는 초창기 原子力研究所의 行政 및 紛業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